

가정과 결혼은 영적 싸움이다

성경말씀: 엡6:10-17

주일에 어떤 것을 설교할까 늘 고민, 베드로전후서, 누가복음 등 생각

1월의 미국 여행, 제임스 닉스의 <가정과 결혼>, '가정과 결혼'의 중요성, 다른 것 미루고 두어 달 동안

공지한 대로 가정과 결혼에 대해 설교하려고 함. 아이들, 청년들, 부부들, 예비부부들 모두 가정과 결혼에 대한 세미나, 책, 정보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가르쳐주는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됨. 아마존에서 서치를 통해 몇 권의 좋은 책들을 구입하고 읽음. 앞으로의 강해는 닉스의 책과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가정과 결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왜 우리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인간은 왜 결혼해야 하는가? 왜 가능하면 자식을 낳아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이 신학적으로 왜 필요한가? 결혼과 가정에도 신학이 들어 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좋으니까 결혼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신학이 있다. 전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의 창조 목적을 보아야 한다.

6,000년 전의 인간, 우주, 세상 창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루시퍼가 하늘의 천사들 삼분의 일과 함께 타락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물론 하나님은 이를 아신다. 그리고 창세 전의 계획에 따라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위엄을 보여 주시기 위해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이라는 창조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람의 창조에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주려는 교훈이 들어 있다. 여기에 결혼과 가정도 포함되어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을 사용하여 교훈을 주려 하심

마귀가 가장 먼저 한 일: 이브를 속이고 결국 아담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궤도에서 벗어남. 메시아 약속 여기서 태어난 큰 아들은 최초의 살인자가 됨.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마귀의 대리전쟁 약 1,500년이 지났을 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자기들의 거처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하여 거인 하이브리드 종족을 만들어 냄. 상상하여 행하는 모든 일이 사악함.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을 사용해서 자신의 인류 구속 계획을 꾸준히 진행하심. 마귀는 그 이후에도 가정과 결혼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함: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의 일부다처제, 이혼, 이교도들의 신전에서 의 간음, 구약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여김, 즉 가정과 결혼의 문맥으로 보심. 구약의 이야기는 다 결혼과 가정 문제로 보면 됨.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

신약시대로 오면서 예수님은 비틀어진 가정과 결혼을 바로 세워주심.

- (1) 마19:1-9, 바리새인들의 이혼 문제, 일부일처,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 불가
- (2) 학대받던 여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심(수가의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 향유를 부인 여인)
- (3) 천대받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심(마19:13-15)
- (4)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뒤(마16:18) 요14장에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언급하시며 자신이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임을 천명하심. 즉 신약 역시 신랑과 신부의 관점, 지금은 신랑이 거처를 예비하는 때, 곧 오셔서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고 혼인 만찬을 한다. 이 신부가 살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성경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의 대적자: 가정과 결혼의 대적자

가정과 결혼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장소요, 무기이다. 이 둘이 온전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실망이 된다. 그러므로 마귀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미워하고 파괴하려고 애를 써 왔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마24:36-39,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를 다 아내로 삼음). 롯의 때와 같다(눅17:28-30, 동성애의 합법화와 증가).

바울의 예언(딤후4:1-3), 혼인을 금하는 마귀들의 교리

날이 갈수록 결혼을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과 결혼은 영적 싸움이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싸워야 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창세 전부터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성도)의 위치, 실제 생활을 가장 잘 담고있는 책

1. 성도의 영적 복과 위치(1:3-14)
2. 과거의 이들의 상태와 구원(2:1-10)
3. 특별히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에 참여한다(3:1-6): 놀라운 신비
4. 이 신비의 목적(3:9-11): 하늘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는 것
5.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야 한다(엡5:8-9).
6. 성령 충만해야 한다(엡5:18).
7. 결혼과 가정: 남편과 아내(5:22-33), 부모 자식(6:1-4), 주인과 종(6:5-9)

바로 그 뒤에 오늘 본문인 엡6:10-17이 나온다. 즉 성도의 결혼과 가정생활은 곧 영적 전쟁이다. 멀리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쟁은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말세에.

결혼과 가정 관련 영적 전쟁의 실례

1. 성적 유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마귀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고전7:2-5): 나이가 차면 결혼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이 성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면 마귀가 가정을 파괴한다.
2.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정을 파괴한다(엡4:26-27). 이유가 있으면 화를 내도 되지만 반드시 속히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가정을 파괴한다. 대화가 중요하다. 특히 남편들이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싸움이다.

영적 전신갑주

가정과 결혼이라는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이기려면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한다.

- 11절: 이 무기는 하나가 아니라 온 몸을 덮는 전신갑주여야 한다. 그러므로 결혼과 가정을 바르게 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하다.
- 12절: 남편과 아내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단순히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말라. 살과 피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영적 사악함과 싸우는 것이다.
- 13절: 악한 날에 버티어내려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지금처럼 악한 때가 없다.

구체적인 무기

1. 진리(14)로 허리를 동여맨다. 허리가 약하면 설 수가 없다. 예수님(요14:6), 아버지의 말씀(요17:17) 결혼과 가정이 도대체 무언인가? 그래서 공부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결혼 생활의 진리: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가 원수가 아니라 마귀가 원수다.” “마귀는 창조물이이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부부 간에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엡4:15, 25).
2. 의의 흉갑, 가슴이 뚫리면 죽는다. 하나님의 의(롬8:1-2), 마귀의 참소, 부부 간에도 의를 지켜야 한다.
3. 화평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므로 부부, 부모자식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화평 유지이다.
4. 믿음의 방패: 마귀의 불화살을 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부 간의 신뢰도 커져야 한다.
5. 구원의 투구: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6. 성령의 검(하나님의 말씀), 부부와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게임은 이미 이긴 것이다.
7. 이런 일을 개인과 가정이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도와야 한다. 그래서 가정이 사는 교회를 해야 한다.

결혼과 가정은 영적 싸움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해야 한다. 영적 무기를 알아야 한다.